

한국역사연구회 디지털역사학연구반 출범 선언문

한국역사연구회 디지털역사학연구반(이하 ‘연구반’)은 디지털 기술과 역사 데이터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역사학적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 즉 디지털 역사학에 관심을 가진 역사학자·인문학자의 느슨하지만 견결한 모임을 지향합니다.

역사학은 과거를 발굴하고, 가공하고, 재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학문의 특성상 역사학계는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전환과 이로 인한 인문사회과학계의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주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결과, 지구화·대형화·가속화 되고 있는 서양학계 주도의 세계학계가 한국학계에 가하는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속수무책으로 각자도생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학계의 역량과 성과에, 그리고 지난 몇 십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세계적인 디지털 인문학 기반과 자료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연구반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날로 증대되는 컴퓨팅 능력과 디지털 기술의 현주소를 고려하면서, 종래의 역사학 연구를 심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역사 데이터의 발굴·생성·가공·편찬을 통해 기존의 지식 창출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역사 지식 형성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집단 지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반의 장기적 목표인 국제저명학술지에 역사학 및 디지털 역사학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기르고, 시공을 가로지르는 탁월하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연구반 진행 원칙

1. 연구반 참가자(이하 ‘반원’)의 의견이나 질문 등 발화에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그 발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거듭 생각한다.
2. 역사학 또는 디지털 역사학을 통해 반원 개개인의 연구가 폭넓은 전공/비전공 독자층에게 어떻게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한다.

연구반 출범식

일시: 2023년 8월 某日(미정)

장소: 카이스트 N4(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동) 4층 국제세미나실

행사 일정

– 연구반 취지 및 운영 계획 소개(5분)

- 디지털 역사학 성과물 소개(15분)
 - 간략한 반원 자기 소개(20-30분)
 -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토론(10-20분)
- 비고: 도시락 및 음료수 제공

연구반 운영 계획		
창설 모임	연구반 출범식(사회: 우동현) 디지털 조선사 소개(발표: 최동혁) * 도시락 및 음료수 제공	오프라인
온라인 학습	반원 각자의 연구 소개(목표: 역사 데이터의 특징과 특정 기술의 접목을 통해 자신의 연구가 왜 중요하고 어떤 새로운 역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연습)	온라인(1~2개월에 1회)
	국내외 디지털 역사학 현황 파악 및 유관 텍스트 함께 읽기	
	디지털 역사학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작업물 공유 방식과 매체 사고	
차후 계획	연 2-3회 정도 워크샵, 연 1회 정도 세미나	온/오프라인
	국내외 디지털 역사학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초청 고려 중인 연사: Cameron Blevins (U. Colorado Denver), Alex Wellerstein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Benoit Berthelier (U. Sydney), Susan Grunewald (Louisiana State) 등	
	국내·국제 컨퍼런스 조직하여 반원 성과 발표	